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영훈 담임목사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간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 긍정적인 보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과연 그 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십 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라 관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젓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민 13:25~27). 이렇듯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가나안 땅이 너무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고 거주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 13:30).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보고한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민 14:9).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절대긍정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 때 뛰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0~33절

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절망, 가난과 저주, 질병과 사망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2.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 때 뛰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 13:31~33).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곳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때 뛰기와 같다”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들려주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밤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민 14:1). 또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민 14:2~3).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수고를 하며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더욱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민 14:4). 결국 불평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긍정의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면

승리의 삶 살 수 있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10년이 넘었어도 마약에 한 번이라도 다시 손을 대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망가진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인 과거의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

문제의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민 14:5).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민 16:4, 22, 20:6).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격분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민 14:19).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민 14:20).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어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 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걸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민 14:28~30).

우리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전문은 순복음가족신문 홈페이지 「www.fgnews.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시 119:105)

6월 20일(월) - 우리가 잊어야 할 것

◎ 말씀 : 창 41:51 ◎ 찬송 : 새 552장(통 358)

휴대폰을 사용할 때 가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휴대폰의 ‘설정’에 들어가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면 다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야 하는데, 이것을 지우지 못하고 쌓아두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로 지을 만큼 과거를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지우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난날을 잊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1일(화) - 생명과 성령

◎ 말씀 : 요 6:63 ◎ 찬송 : 새 184장(통 173장)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꼭 섭취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충족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도 꿈과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기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의 눈에 생기가 넘쳐흐릅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공급받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은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들이십시오. 한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2일(수) -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 말씀 : 욥 28:24~26 ◎ 찬송 : 새 69장(통 33장)

과학의 발달로 신비로 생각되던 자연의 비밀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의 눈부신 성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과학의 빛나는 업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과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과학은 그 현상을 연구하고 작동 원리를 부분적으로 겨우 밝혀낸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의 그림자에 불과한 과학입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신비는 과학이나 철학 등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